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반도체주 매도 압력에도, 미-이란 협상 기대감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8일(월) 미국 증시는 씨게이트 CEO의 AI 인프라 병목현상 심화 발언에 따른 마이크론(-5.9%), 샌디스크(-5.3%) 등 반도체주 약세로 장 중 증시 전반에 걸쳐 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트럼프의 이란 협상 진전 발언 속 유가 및 금리 급등세 진정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혼조세 마감(다우 +0.3%, S&P500 -0.1%, 나스닥 -0.5%).

이날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씨게이트 CEO의 “새공장, 새장비를 들이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발언 이후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노이즈가 생성된 모습. “공급 제약 -> 출하 제한(Q) -> 추가 성장 피크아웃”이라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부각된 가운데, 타이밍 상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 등 그간 수차례 랠리를 전개했던 반도체주의 급락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

그러나 병목현상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P) -> 메모리 업체 협상력 우위 지속 -> 반도체주 실적 개선”과 같은 주도 내러티브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 미국 10년물 금리 4.5%대 돌파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금리 급등 사태를 만들어낸 미-이란 전쟁이 협상 진전 쪽으로 무게가 다시 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현재 한국, 미국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주들은 그간의 속도 부담을 빌미 삼아 차익실현 압력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는 함. 동시에 주중 미-이란 협상 모드 재돌입, 21일 엔비디아 실적 등 주가 하단을 제한 시키는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 시, 주도주 매도 작업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나스닥 급락, 10년물 금리 4.6% 돌파 부담 등으로 장초반 5% 가까이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 카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 과대 인식 속 개인의 순매수 확대, 삼성전자의 파업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1.7%).

금일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세 진정 vs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노이즈 등 미국발 단기 상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는 금요일(장중 +0.8%에서 -7.6%대)에 이어 전일에도 -4.7%대에서 +1.9%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장 중 시세 급변으로 시장의 대응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변동성 확대는 미국 10년물 금리 4.5% 돌파, 전쟁 불확실성 등 외생 변수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8,000pt 돌파라는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만한 심리적인 임계치 도달 및 이를 달성했던 속도 부담이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

일례로, 작년 10월 27일 4,000p를 돌파 시 85영업일, 올해 1월 27일 5,000pt 돌파 당시에는 63영업일, 2월 25일 6,000pt 돌파 당시에는 18영업일, 5월 6일 7,000pt 돌파 당시에는 47영업일이 소요되었음. 반면, 지난 5월 15일 장 중 8,000pt를 돌파했을 때의 기간은 8영업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시현.

물론 3,000pt에서 4,000pt로 올라갈 때 필요한 상승률은 33.3%인 반면, 7,000pt에서 8,000pt로 올라갈 때 필요한 상승률은 14%이기에, 단순 영업일수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렇지만, 이를 감안해서 일평균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4,000pt → 5,000pt → 6,000pt → 7,000pt까지의 일평균 상승률은 +0.6%인데 반해, 7,000pt → 8,000pt는 +2.3%로 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판단.

당분간 이 같은 속도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중 변동성 확대는 빈번하게 출현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어디까지나 속도 조절의 일환일 뿐, 증시의 기존 상승 추세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닐 전망.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8.1배 수준으로 이전 4,000~7,000pt 구간에서의 평균 PER(9.5배)에 비해 멀티플 부담은 적은 편이기 때문. 12개월 선행 이익 모멘텀도 4월 +197%(YoY) → 5월 +214%(YoY)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번주 미국 4월 FOMC 의사록, 일본 4월 CPI, 21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등 매크로, 실적 이벤트 전후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장중 매도세에 동참하기 보다는 반도체 등 주도주 중심의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작년 이후 코스피 1,000pt 씩 레벨업을 했을 때의 프로파일: 7,000pt에서 장중 8,000pt 돌파까지의 속도는 역대급

구간	돌파일	소요 영업일	1,000pt 마다 필요 상승률	일평균 상승률	1,000pt 돌파 기간 중 최대 낙폭
3000→4000	2025-10-27	85	33.3%	+0.4%	-4.2%
4000→5000	2026-01-27	63	25.0%	+0.4%	-8.9%
5000→6000	2026-02-25	18	20.0%	+1.1%	-5.3%
6000→7000	2026-05-06	47	16.7%	+0.3%	-19.9%
7000→현재 (5/15 장중 8,000 돌파)	2026-05-15	8	14.0%	+2.3%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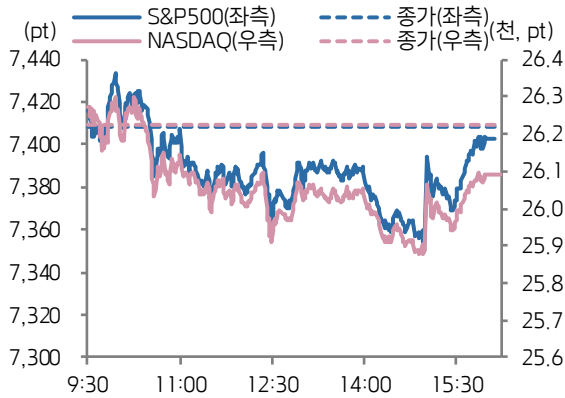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레벨업 이익, 밸류에이션 프로파일 변화: 속도 부담은 있는 반면 이익과 멀티플은 현재의 지수 레벨업을 정당화. 추후 속도조절 과정은 수반되겠지만, 추세를 위협하는 신호가 아닐 것임을 시사

시점	일자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조원)	이익 증가율 (YoY)	선행 PER	선행 PBR	시가총액 (조원)
3,000pt 돌파	2025-06-20	3,021.84	318	+6.7%	10.2	0.95	2,409
4,000pt 돌파	2025-10-27	4,042.83	363	+14.6%	11.7	1.21	3,234
5,000pt 돌파	2026-01-27	5,084.85	489	+61.9%	10.6	1.44	4,078
6,000pt 돌파	2026-02-25	6,083.86	590	+97.7%	10.1	1.60	4,862
7,000pt 돌파	2026-05-06	7,384.56	922	+195.1%	7.1	1.57	5,869
8,000 돌파(5/15 장중)	2026-05-15	7,981.41	983	+213.5%	8.1	1.85	6,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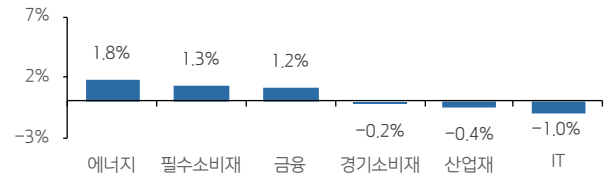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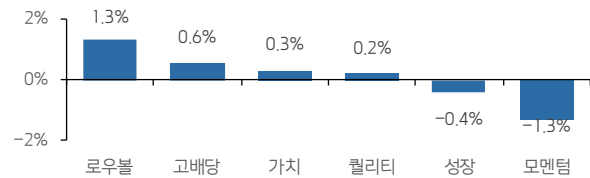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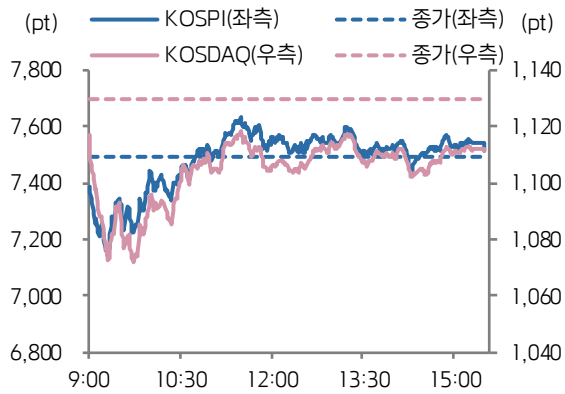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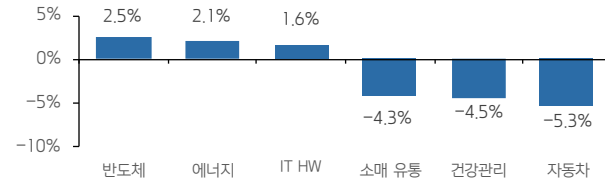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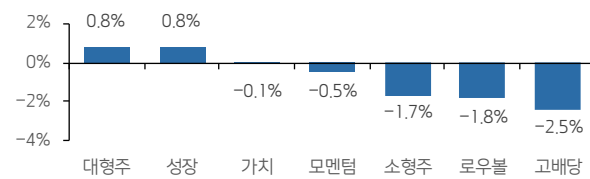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7.84	-0.8%	+9.56%	GM	73.10	-2.35%	-10.11%
마이크로소프트	423.54	+0.38%	-12.42%	일라이릴리	988.09	-1.67%	-8.06%
알파벳	396.94	+0.04%	+26.82%	월마트	133.34	+1.44%	+19.68%
메타	611.21	-0.49%	-7.41%	JP모건	300.73	+0.98%	-6.67%
아마존	264.86	+0.27%	+14.75%	엑손모빌	160.49	+1.63%	+33.36%
테슬라	409.99	-2.9%	-8.83%	셰브론	196.12	+2.63%	+28.68%
엔비디아	222.32	-1.33%	+19.21%	제너럴일렉트릭	133.34	+1.4%	+19.7%
브로드컴	420.71	-1.05%	+21.56%	캐터필러	863.95	-2.74%	+50.81%
AMD	420.99	-0.73%	+96.58%	보잉	220.61	+0.05%	+1.61%
마이크론	681.54	-5.95%	+138.79%	넥스트에라	89.04	-4.6%	+1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516.04	+0.31%	+78.35%	USD/KRW	1,492.90	-0.31%	+3.71%
코스피200	1,171.30	+0.77%	+93.29%	달러 지수	98.95	-0.34%	+0.64%
코스닥	1,111.09	-1.66%	+20.06%	EUR/USD	1.17	+0.27%	-0.77%
코스닥150	1,865.26	-1.89%	+20.55%	USD/CNH	6.80	-0.21%	-2.53%
S&P500	7,403.05	-0.07%	+8.14%	USD/JPY	158.82	+0.05%	+1.35%
NASDAQ	26,090.73	-0.51%	+12.26%	채권시장			
다우	49,686.12	+0.32%	+3.38%	가격	DTD(bp)	YTD(bp)	
VIX	17.82	-3.31%	+19.2%	국고채 3년	3.757	-0.8bp	+80.6bp
러셀2000	2,775.10	-0.65%	+11.81%	국고채 10년	4.247	+2.7bp	+86.2bp
필라. 반도체	11,302.52	-2.47%	+59.57%	미국 국채 2년	4.044	-2.5bp	+57.1bp
다우 운송	20,216.74	+0.41%	+16.47%	미국 국채 10년	4.587	-0.6bp	+42bp
상해종합	4,131.53	-0.09%	+4.1%	미국 국채 30년	5.123	+0.7bp	+27.9bp
항생 H	8,597.97	-1.07%	-3.54%	독일 국채 10년	3.148	-1.9bp	+29.3bp
인도 SENSEX	75,315.04	+0.1%	-11.6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849.00	+0.36%	+0.99%	WTI	108.66	+3.07%	+90.6%
MSCI 전세계 지수	1,098.23	-0.07%	+8.24%	브렌트유	112.10	+2.6%	+84.22%
MSCI DM 지수	4,739.86	-0.04%	+6.99%	금	4,558.00	-0.09%	+3.43%
MSCI EM 지수	1,662.94	-0.31%	+18.41%	은	77.07	-0.11%	+9.16%
MSCI 한국 ETF	176.10	-1.54%	+81.14%	구리	627.20	+0.33%	+10.3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비트코인	76,855.49	-1.77%	-12.31%	BDI	3,151.00	-1.38%	+67.87%
이더리움	2,116.01	-3.31%	-28.94%	옥수수	477.00	+4.66%	+4.95%
				밀	664.50	+4.52%	+25.08%
				대두	1,213.00	+3.06%	+12.92%
				커피	264.20	-1.01%	-18.9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이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